

## 청일전쟁과 갑오개혁

### 1. 청일전쟁

#### 1) 청일전쟁의 배경

- 19세기 후반 청·일 양국관계: 류큐(오키나와), 타이완과 조선을 둘러싼 긴장
- 1870년 10월 일본 외무성에서는 청국에 특사를 파견, 조약 체결 요구
- 청국은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면서 거절
- 1872년 10월 일본의 류큐 병탄
- 1874년 일본의 타이완 침공
- 청은 일본의 이 행동이 중국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인식  
--> 조선에 대한 종주권에 위기의식 ↑
- 임오군란을 계기로 내정간섭 강화 --> 갑신정변 발발
- 일본은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그 종주적 지위를 부정하고자
-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청은 조선에서 국감(監國)정책 실시(러시아, 일본 견제)

#### 2) 청일전쟁의 발단

- 동학농민군의 봉기(1894년 봄)
- 조선 정부는 청국에 원병을 요청, 일본도 조선에 군사를 파견(1885년 천진조약에 의거)
- 6월 11일 정부군과 동학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
  - ☞ 폐정개혁안의 주요 내용
    - 탐관오리를 징계할 것
    - 결작전은 돈으로 거두고, 공평하게 부과
    - 각국 상일돈을 항구에서 거래, 도성내 시장 설치 및 정해진 곳 이외의 행상 금지
- 일본 정부는 공동철병안 대신 조선의 내정을 공동으로 개혁하자는 안을 제시

#### 3)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

- 1894년 7월 23일 일본군의 경복궁 침공
- 7월 25일 일본해군이 豊島 앞바다에서 청국함대 공격
- 1895년 2월 강화회담 시작, 4월 17일 시모노세키조약 체결

#### 4) 청일전쟁의 결과

- 중국이 전통적으로 조선에 대하여 행사해 왔던 종주권이 폐지
- 청국·일본·조선 간의 국제질서를 일본 중심으로 재편, 대만을 식민지로 확보

#### 5) 청일전쟁, 그 이후

- 삼국간섭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력 감소
- 을미사변(1895)-->아관파천(1896)

## 2. 갑오개혁

### 1) 갑오개혁의 전개 과정

- 。 1894년 7월 27일부터 1896년 2월 11일까지 추진하였던 제도 개혁, 3단계로 진행
- 。 제1차(1894년 7월 27일~12월 17일)
  - 군국기무처 핵심 인물들의 주도로 약 210건의 개혁안을 의결·실시
- 。 제2차(1894년 12월 17일~1895년 7월 6일)
  - 일본 특명전권공사 이노우에의 지원 하에 구성된 이른바 '김홍집·박영효 연립내각'
  - 총 213건의 개혁안을 공포·시행
  - 300만 엔의 일본차관 제공
- 。 제3차(1895년 7월 7일~1896년 2월 11일)
  - 김홍집·유길준이 각각 총리대신 및 내부대신으로 집권
  - 약 140여 건에 달하는 개혁법령을 제정·공포
  - 단발령을 무리하게 강행
  - 고종이 1896년 2월 11일에 러시아공사관으로 망명(아관파천) --> 주도세력 실권

### 2) 갑오개혁의 주도세력

- 。 1880년대에 외교, 내지 문화사절단의 일원 혹은 유학생 출신
- 。 일본군의 후원에 힘입어 집권
- 。 일본의 군사적·경제적 지원에 의존

### 3) 갑오개혁의 내용

- 。 동학농민군이 제1차 봉기 당시에 제시한 弊政改革案 등 민중의 개혁 요구를 수렴
- 。 일본 및 서구의 효율적인 근대적 정치·군사·재정·교육제도 등을 도입
- 。 조선의 자주·독립을 선양하는 일련의 개혁조치
- 。 전통적인 절대군주제적 통치제도를 내각 중심의 입헌군주제로 바꾸려
- 。 국가의 재무행정의 일원화, 근대적 재정체계의 확립 시도
- 。 근대적 상비군과 경찰제도를 시도
- 。 근대식 학교제도를 수립
- 。 신분제도의 개혁 단행
- 。 근대적 재판제도를 수립

### 4) 갑오개혁의 의의

- 。 근대적인 민족주의·민주주의·평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추진
- 。 자주독립의 선양 --> 독립협회운동의 선구
- 。 내각 중심의 입헌군주제, 탁지부로의 재정일원화  
--> 군주권 강화에 배치(대한제국기에 좌절)
- 。 근대적 개혁의 기초를 마련